

LED감성조명? “대낮 수업엔 무용지물”

물의 빛은 광주교육청 LED등 교체... 일선 학교 반응 보니

광주시 교육청이 15억 원대 LED조명등 교체 사업을 특정업체에 몰아줬다(광주일보 4월 15일 6면)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LED 감성조명으로 교체한 특수학급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불만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광주시교육청과 일선 학교 내 특수 학급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실에 설치된 LED감성조명은 예능(미술·음악), 언어(국어·영어), 수리(수학·과학) 등 3개 과목에 따라 조명색운도를 조절할 수 있다. 예능 조명은 색온도가 3000K±500으로 주황색계열의 빛깔을 띠며 가장 온은하다. 언어 조명은 5000K±500으로 백색계열, 수리 조명은 6500K±500으로 파란색계열을 띤다. 색온도가 높아질수록 조도는 밝아진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기존 조명등을 LED 감성조명으로 교체한 이후 교실이 더

교실 되레 어두워지고
리모콘 오작동에 어수선

빛에 민감한 학생 드물어
특수교육 전문가 “효과 의문”

어두워졌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학교 특수학급 관계자는 “3가지 색으로 조절은 가능하지만 전반적으로 어두워 셋 중에 가장 밝은 ‘수리’로 고정해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B학교 특수학급 교사도 “예능의 경우 조명이 붉은 빛을 띠는데 익숙하지 않아 그냥 가장 밝게 해 쓰고 있다”고 말했다.

C학교 교사는 오작동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리모콘을 누르면 바로바로 조명색이 바뀌어야 하는데 한쪽은 바뀌고 한쪽은 바뀌지 않는다”며 “나이트를 럽도 아니고 주황색·파란색·형광색이 뒤죽박죽으로 나오니 할 말이 없다”고 따졌다.

LED감성조명 기능 중 하나인 센서에 대해서도 불만을 털어놨다.

D학교 교사는 “특수학급의 경우 학생 수가 7명 정도로 작아 수업을 하면 한쪽에 모여 진행한다”며 “하지만 LED조명으로 교체 후 센서기능이 작동해 아이들이 없는 곳은 자동으로 조명이 꺼져 교실 전체가 더 어두워진다”고 말했다.

E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이 교실에 있는 시간이 주로 훈련 낮시간인데 감성조명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시범사업 등으로 통해 효과를 검증해보고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특수교육 전문가도 감성조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지역 대학의 한 교수는 “감성조명은 빛에 민감한 장애 학생들에게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수학급의 경우 빛에 민감한 학생들이 다니는 게 아니어서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말까지 특수학교 2개교와 일반학교 178 개교 등 180개 학교의 노후 조명기기 2880 개를 LED 감성조명등으로 교체했다. 총 사업비는 18억3790만원이 투입됐고, 이 중 15 억7000만원(85.5%)은 LED 감성조명등기구 구입비로 쓰였다. 구매가격은 일반LED 등보다 3~4배 비싼 개당 55만원이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조명이 장애 학생들의 주의력 결핍과 억제력 부족으로 인한 충동적 행동을 제어할 수 있고 정서 합양에도 도움이 된다고 구매 배경을 설명했다.

/부경오기자 jwpark@kwangju.co.kr

‘기름 유출량 축소’ GS칼텍스 공장장 영장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15일 우이산호 충돌 유출률 사고와 관련, GS칼텍스 여수 공장 생산 1 공장장 박모(54)씨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GS칼텍스 여수공장 생산 1 공장장이 우이산호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유출량을 축소·은폐하기로 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해양경찰은 애초 GS칼텍스 원유유저유입장이 책임자금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판단, 공장장에 대해서는 입건하는 것으로 미루어졌다. 해경의 미흡한 수사력이 도마 위에 오른 이유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사고 당일 GS칼텍스 측에서 대량(최소 300㎘ 이상)의 기름이 유출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책회의를 열어 유출량을 축소·은폐하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경오기자 jwpark@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광주·전남경찰, 지방선거 관련 88명 수사

광주·전남 경찰이 6·4 지방선거와 관련, 모두 88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5일 광주·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경찰의 경우 8건·13명, 전남경찰은 52 건·75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전남의 경우 금품·환율제공이 35명으로 가장 많고 사전 선거운동 11명, 공무원 선거영향 8명, 허위사실 유포 6명 등 순이 것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변호사회 309명 25일까지 무료 법률상담

전체 인구 8만 8720명인 나주지역 내 변호사 사무소는 한 곳이다. 함평(3만5493명)도 변호사 한 명만이 사무소를 운영중이다.

그나마 이들 지역 사정은 다소 나은 편이다. 광양(15만1532명)·담양(4만7362명)·장성(4만6453명)·화순(6만7576명) 등 전남 22개 시·군 중 15개 시·군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기 힘들다. 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거나 까다로운 법 절차를 물어볼 변호사가 없다는 얘기다.

광주변호사회(회장 문정현)가 제 51 회 법의 날(25일)을 맞아 오는 25일까지 ‘대국민 무료법률상담’에 나서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광주변호사회는 이 기간 소속 변호사 309명이 참여해 모든 법률사무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시민들의 법률 상담을 통해 그동안 상당수 시민들에게 ‘문턱 높은’ 곳으로 여겨졌던 인식을 바꾸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성두 광주변호사회 공보이사는 “향후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지역의 경우 변호사를 파견, 지역민들의 법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승용차 공동 명의 째지는 아내에게 핫김 폭력 행사

○“승용차의 명의가 왜 공동으로 돼 있느냐”

고 째지는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아내의 신고로 경찰서에

행사한 50대 남성이 아내의 신고로 경찰서에